

여야정, 20일 첫 4자 회담...추경·반도체법 합의점 찾을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국정협의회 구성 42일만에 만남
최대 현안은 '추경'...민주당 단독 '35조 추경안' 국회 철회 요구

정부와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정 국정협의 회를 열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대표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현안은 추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추경안은 조속히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추동하려는 일종의 협상안으로,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양보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이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데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역화폐 추경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서는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추경안에 넣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버리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도체법 '주52시간 근로'·연금개혁 특위 구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뺐 채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을 두고선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원 보강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여·야정 대표가 여러 현안을 놓고 '툄다운'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는 만큼 이번 회담은 여야의 민생 정치 진정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려운 민생·경기에 따른 추경 필요성, 중국 딥시크(DeepSeek)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계기로 대두된 첨단 산업 지원 필요성,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타협안을 마련해야 할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가 여전히 현안에 대한 교착 상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과 자체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과 한배 탄 국힘, 조기 대선 전략 '고심'

탄핵 인용 땀 60일 초단기 레이스...극우화에 '외연 확장' 큰 숙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몰밀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음 달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60일의 초단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탄핵심판 선고 후 전후해 당이 취할 입장장과 노선,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용 수습과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현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배경은 윤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인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극우화'라는 야권의 프레임 공세에도 이 같은 행보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지지층이 응

집력을 보임으로써 당 지지율도 한 달 만에 회복했기 때문이다.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더라도 이들의 '화력'을 바탕으로 야당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맥락이기도 하다.

한 중진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면 가운데가 없는 좌우만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움직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탄핵에 반대하면서 지지층에 소구하는 '우파 결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 역시 비슷한 행보로 보인다.

반면, 막상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때부터 중

도중·수도권·청년층을 공략하는 외연 확장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단기전은 태세 전환이 어려운 데다, 여야의 지지율이 팽팽한 상황에서 승부의 열쇠는 이들 '중·수·청'이 쥐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면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쇄신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중원 공략'에 앞장설 대권주자들로 꼽힌다.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관심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나아가 출당 조치 같은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란 옹호자에 5·18 광장 뺏기는 일 없어"

강기정 시장 '금남로 지켜줘 감사'...민주 "교회 이름 내걸고 집회 충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계엄 옹호 시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에 대해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그 일부가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서 모였다는 점이 충격"이라고 했

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질서 있고 성숙하게 대응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으로 매도하는 망동", "지역주의와 편 가르기 조장"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광주에서의 표현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한동훈 "찾아뵙겠다" 조기 대선 출마 시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썼다. 그는 또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사퇴 후 잠행을 이어온 한 전 대표는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과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등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그의 페이스북은 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글 이후 첫 글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